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80



# Contents

---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6.02.19~2026.02.25

## ①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 1
- 경제·관광 ..... 2
- 지역·사회 ..... 2

## ②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 7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 10

##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미래, 예비후보(오영훈/문대림/위성곤/경선), 평가, 책임, 청년
경제·관광	항공(노선), 관광객, 생산, 평가, 연휴
지역·사회	건강, 연구, 구조, 대응, 예방

※ 분석 기간 : 26.02.19.~26.02.25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 중장기 미래 발전 전략 수립</li> <li>- 국민의힘, 제2공항 연계 미래산업 대전환</li> <li>- 고태민 도의원 불출마 및 제주의 미래 강조</li> </ul>
	예비후보(오영훈/문대림/위성곤/경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당 도지사 예비후보 중앙당 공천 면접</li> <li>- 오영훈·문대림 갑점 위기로 요동치는 경선판</li> <li>- 위성곤 의원 도지사 출마 공식 선언 및 공약</li> </ul>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영훈 지사 하위 20% 평가 통보 및 이의신청</li> <li>- 제주시 에코촌 유스호스텔 모범시설 평가 우수</li> <li>- 제주지역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관리 점검</li> </ul>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성유 후보, 문대림·위성곤 의원 책임론 비판</li> <li>- 위성곤 의원, 환경미화원 임금 관리 책임 촉구</li> <li>- 서귀포시, 건축행정 담당 공무원 신원보증보험 가입</li> </ul>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당 후보들의 청년 인구 유입 및 지원 정책</li> <li>- 제주청년센터와 대학 총학생회 간 업무협약 체결</li> <li>-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항공 특성화 대학 추진</li> </ul>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항공(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항공 김포~제주 노선 대폭 증편</li> <li>- 대형 항공사 통합에 따른 제주 노선 축소 우려</li> <li>- 제주항공의 중국 주요 노선 운항 재개 및 확대</li> </ul>
	관광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 연휴 제주 방문 관광객 큰 폭 증가</li> <li>-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춘제 연휴 특수</li> <li>- 관광객 200만 명 조기 돌파 및 선제적 마케팅</li> </ul>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지역 서비스업 및 광공업 생산 장기 부진</li> <li>- 양식산업 친환경 생산체계 전환 집중 지원</li> <li>- 딸기 우량 모종 지역 자체 생산 및 농가 보급</li> </ul>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농축협 종합업적평가 최우수 쾌거</li> <li>- 제주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평가 대거 통과</li> <li>- 신약개발 평가 플랫폼 혁신 기업 대규모 투자 유치</li> </ul>
	연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춘제 연휴 맞이 중국인 관광객 대규모 입도</li> <li>- 설 연휴 지역화폐 탐나는전 사용액 폭발적 증가</li> <li>- 명절 연휴 반려동물 동반 항공기 탑승객 급증</li> </ul>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증정신질환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개시</li> <li>- 서귀포보건소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li> <li>- 119구급 현장 인공지능 심전도 판독 시스템 도입</li> </ul>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지역 아동돌봄정책 점검 및 발전 과제 연구</li> <li>-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 성과 공유</li> <li>- 제주 4.3 진실 규명을 위한 실증적 사료 연구</li> </ul>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라도 방파제 해상 추락 부자 긴급 인명 구조</li> <li>- 멸종위기 겨울 철새 큰고니 치료 후 자연 구조</li> <li>- 폐어구 얽힌 남방큰돌고래 신속한 구조 촉구</li> </ul>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범죄 적극 대응 위한 기동순찰대 재편</li> <li>- 기후위기 선제 대응 지능형 재난관리 체계 구축</li> <li>- 호흡기감염병 유행 확산 대응 감시망 확대 운영</li> </ul>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번기 과수 전정 파쇄기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li> <li>- 무인단속 과태료 수익 환원 통한 교통사고 예방</li> <li>- 중소규모 숙박시설 대상 선제적 화재 안전 예방</li> </ul>

##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2026년 2월 19일~2월 25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883건임
  - 정치·행정 분야 437건, 경제·관광 171건, 지역·사회 275건임
  -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미래, 예비 후보(오영훈/문대림/위성곤/경선), 평가, 책임, 청년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 중장기 미래 발전 전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가 추진하는 5급 3특 체계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적극적으로 발맞추어, 포괄적 권한 이양과 2차 공공기관 제주 유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중장기 미래 발전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실행 기반을 마련함.</li> <li>·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냉철히 진단하며, 에너지 대전환, 민간 우주 발사, 데이터 허브 산업 등 신성장 전략산업 중심의 핵심 과제를 발굴하여 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 경제 성장 동력을 확고히 다질 계획임.</li> </ul> </li> </ul>
-------	----	--

	<p style="text-align: center;"><b>미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국민의힘, 제2공항 연계 미래산업 대전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중앙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제주 제2공항 추진 지원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제2공항을 국가 핵심 기반시설로 규정해 침체된 제주의 미래산업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혁신하는 대전환 구상을 도민들에게 발표함.</li> <li>· 단순한 항공 인프라 확장을 넘어 공항 연계 산업 클러스터와 혁신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항공 특성화 대학 설립을 추진하여 항공 운항 및 정비 등 미래 항공기술을 이끌어갈 전문 인재를 도내에서 직접 양성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구축할 방침임.</li> </ul> </li> <li>- <b>고태민 도의원 불출마 및 제주의 미래 강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힘 소속 고태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개인의 정치적 입지 연연보다는 애월읍과 제주 전체의 미래 발전이 훨씬 우선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를 위한 용단임을 밝힘.</li> <li>· 단순한 자리 보전보다는 지역 사회의 연속성과 화합을 굳건히 지켜내는 것이 더 중요하며, 다음 세대가 더 넓은 무대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도의원으로서 제주의 미래를 위해 남은 핵심 역할이라고 강조함.</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정치·행정</b></p>	<p style="text-align: center;"><b>예비후보 (오영훈/ 문대림/ 위성곤/ 경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민주당 도지사 예비후보 중앙당 공천 면접</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제주도지사, 문대림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등 유력 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들이 서울 중앙당사에서 열린 광역단체장 공천 면접에 나란히 참석하여 지방자치 연계 발전 방안과 청년 인구 유출 해결 등 저마다의 강점과 정책 비전을 적극적으로 피력함.</li> <li>· 세 후보는 모두 치열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정한 룰을 준수하여 민주당의 최종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야 함을 역설했으며, 상호 비방을 자제하고 정책 선거로 나아가 제주의 밝은 미래를 책임지는 건 강하고 생산적인 경쟁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한목소리를 냄.</li> </ul> </li> <li>- <b>오영훈·문대림 감점 위기로 요동치는 경선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역인 오영훈 지사가 광역단체장 선출직 평가에서 하위 20% 통보를 받아 경선 득표 20% 감산이라는 큰 페널티 위기에 처했으며, 문대림 의원 역시 과거 선거에서의 공천 불복 이력으로 인해 최대 25% 감점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민주당 도지사 경선 구도가 심하게 요동침.</li> <li>· 두 유력 후보에게 닥친 대규모 감점 변수로 인해 상대적으로 감점 대상이 아닌 위성곤 의원이 공천 심사 및 경선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었으며, 향후 당 최고위원회 예외 의결 여부와 후보 간 단일화 성사 여부가 이번 도지사 경선의 최종 승패를 좌우할 최대 핵심 변수로 떠오름.</li> </ul> </li> <li>- <b>위성곤 의원 도지사 출마 공식 선언 및 공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제주대학교 정문에서 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3선 도의원 및 3선 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풍부한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사회의 근본적인 대전환을 이끌어내며 도</li> </ul> </li> </ul>

	<b>예비후보 (오영훈/ 문대림/ 위성곤/ 경선)</b>	<p>민의 팍팍한 민생을 자신이 직접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포부를 밝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핵심 공약으로 제주국제과학기술대학원(JIST) 설립, 국가 AI 데이터센터 구축 등 경제 체질 전환을 약속함과 동시에, 햇빛·바람 연금 도입 및 청년 기본소득 등 에너지 대전환의 이익을 도민에게 돌려주어 도민 이익을 극대화하는 다양한 정책 청사진을 도민들에게 제시함.</li> </ul>
<b>정치·행정</b>	<b>평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오영훈 지사 하위 20% 평가 통보 및 이의신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광역단체장 선출직 평가 하위 20%에 포함되었다는 충격적인 통보를 받았으며,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도내 공직자들과 피땀 흘려 노력한 도정 성과가 낮게 평가된 점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적으로 당에 공식 이의신청을 제기함.</li> <li>·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도정 정책들이 도민 공감대를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한 점이 부정적 평가에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자체 분석하면서도, 이의신청 결과와 무관하게 탈당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며 당헌·당규 원칙을 존중해 끝까지 도지사 후보 경선 레이스를 완주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표명함.</li> </ul> </li> <li>- <b>제주시 에코촌 유스호스텔 모범시설 평가 우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시가 운영하는 에코촌 유스호스텔이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정기총회에서 친환경 기반의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과 지속적인 시설환경 개선 노력을 높게 인정받아 전국 시설 중 2026년 모범 청소년수련시설로 최종 선정되며 뜻깊은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함.</li> <li>· 국내 청소년 시설 최초로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과 국제 친환경 인증인 그린키를 획득하는 등 모범적인 친환경 운영을 이어왔으며, 람사르습지와 연계한 생태환경교육 거점으로서 이용자 만족도 98.1%를 달성하고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을 기록하는 등 뛰어난 서비스 품질을 공식적으로 입증함.</li> </ul> </li> <li>- <b>제주지역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관리 점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는 지역 내 골프장 2개소와 관광개발 20개소 등 총 55개소의 대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발사업 착공 이후 사업자가 약속한 환경영향 저감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및 지역주민과 합동으로 철저한 사후관리 점검 및 현장 평가를 실시함.</li> <li>· 특히 환경오염 우려가 크거나 주민 민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의 경우 드론을 활용한 정밀 평가를 병행하며, 점검 결과 협의 내용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이행명령을 내리고 연말 사후관리 평가 보고회를 개최해 우수 사업장과 유공자를 선정하여 적극 표창할 계획임.</li> </ul> </li> </ul>
	<b>책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문성유 후보, 문대림·위성곤 의원 책임론 비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 예정자인 문성유 전 기획재정부 기초실장은 성명을 내고 문대림 의원을 향해 과거 사적 통화 녹음 폭로 및 특정 선거 공천 불복 탈당 등 비도덕적인 행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도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공적 책임을 지는 정치적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함.</li> <li>· 또한, 위성곤 의원이 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도 국회의원직 사퇴는 전혀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는 지역 유권자들을 볼모로 삼는</li> </ul> </li> </ul>

<b>정치·행정</b>	<b>책임</b>	<p>무책임한 정치적 계산이자 안전장치를 마련한 꿈수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선출직에 상응하는 막중한 책임감과 단호한 사퇴 결단을 요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위성곤 의원, 환경미화원 임금 관리 책임 촉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성곤 국회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서 강남구청의 사례를 분석하여, 청소대행업체들이 정부 고시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기본급을 지급하고 유명무실한 임금 보호 규정을 방치한 지자체의 부실한 관리·감독 행태를 꼬집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문제 지적과 함께 행정적 책임 규명을 강하게 촉구함.</li> <li>· 이재명 대통령 역시 환경미화원들의 적정 임금 보장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전수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위 의원은 필수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 없이는 공공서비스 질적 향상도 불가능을 역설하며 지자체가 단순 착오를 넘어선 관리 책임을 엄중히 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함.</li> </ul> </li> <li>- <b>서귀포시, 건축행정 담당 공무원 신원보증보험 가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귀포시는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과 매우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건축 인허가 업무의 공정성과 행정적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분청 건축과 및 각 읍·면의 건축 담당 공무원 총 42개 직위를 대상으로 최대 2억 원 한도의 신원보증보험에 전면 가입하는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성공적으로 완료함.</li> <li>· 이번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일선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시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에 선제적으로 대비함으로써, 대시민 행정 서비스의 신뢰도를 한층 높이고 공무원들이 보다 투명하고 확고한 책임감 속에서 업무를 수행할 기반을 조성함.</li> </ul> </li> </ul>
	<b>청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민주당 후보들의 청년 인구 유입 및 지원 정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들의 중앙당 공천 면접 과정에서 수천 명의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문제로 제주를 떠나는 심각한 인구 유출 현상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으며, 문대림 의원은 자신이 역동적인 해결사임을 자처했고 위성곤 의원은 청년 유입을 위한 교육 및 육아 인프라 확충의 시급성을 대안으로 제시함.</li> <li>· 특히 위성곤 의원은 청년들의 불안정한 주거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돕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 기본소득 및 청년 기본금융 제도의 도입을 주요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기존 관광서비스 중심 산업을 지식산업 중심으로 재편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혁신적인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겠다고 약속함.</li> </ul> </li> <li>- <b>제주청년센터와 대학 총학생회 간 업무협약 체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내 청년 정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제주청년센터는 제주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등 지역 대학 총학생회와 긴밀히 만나 청년 교류 활동 촉진 및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 연계 강화를 목표로 삼는 다자간 공식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활발한 정책적 소통과 협력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함.</li> <li>· 대학생을 대표하는 총학생회의 공식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제주청년보장제 등 핵심 청년 정책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신속히 제공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청년 지원 사업을 기획하고 행정 정책의 체감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탄탄한</li> </ul> </li> </ul>



<b>경제·관광</b>	<b>항공 (노선)</b>	<p>물 나들이와 여행객들의 이동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대형 항공사 통합에 따른 제주 노선 축소 우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향후 적용 될 하계 운항 스케줄 조정 과정에서 중복 노선인 제주행 항공편이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됨.</li> <li>·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 방지 시정조치 이행과 고환율 등에 따른 항공기 운영 효율화 전략이 맞물리면서, 좌석 공급 감소와 항공 요금 상승 압력에 대한 관광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됨.</li> </ul> </li> <li>- <b>제주항공의 중국 주요 노선 운항 재개 및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항공은 하계 스케줄 기간에 맞춰 제주~베이징 서우두 노선을 주 3회 재운항하고, 인천~웨이하이 노선을 주 14회로 증편하는 등 중국 노선을 공격적으로 확대함.</li> <li>· 한중 양국 정부의 비자 면제 정책 시행으로 여행 편의가 크게 높아짐에 따라 여객 수요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며, 정기 및 부정기 노선을 통해 양국 여행객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임.</li> </ul> </li> </ul>
	<b>관광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설 연휴 제주 방문 관광객 큰 폭 증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해 설 연휴 기간 동안 당초 예상치를 웃도는 약 25만 명의 관광객과 귀성객이 제주를 방문하여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한 수치를 기록하며 지역 관광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음.</li> <li>· 국내 항공기 운항 편수가 늘어나면서 내국인 관광객이 21만 명을 돌파했으며, 서귀포시 주요 공영관광지 방문객도 5만 7912명으로 전년 대비 34.5% 급증하는 등 뚜렷한 소비 회복세를 보임.</li> </ul> </li> <li>- <b>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춘제 연휴 특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대 최장기간 이어진 중국의 춘제 연휴를 맞아 항공편 증편과 크루즈 입항이 겹치면서 약 3만 4900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에 대거 몰려 관광, 유통, 호텔업계가 특수를 누림.</li> <li>· 제주 주요 복합리조트 등 중화권 관광객이 선호하는 호텔은 객실 점유율이 급증하여 사실상 만실을 기록했으며, 리조트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역시 연휴 내내 활황을 띠는 파급 효과가 나타남.</li> </ul> </li> <li>- <b>관광객 200만 명 조기 돌파 및 선제적 마케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올해 제주를 찾은 누적 관광객이 3월 23일을 기점으로 2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이는 지난해 200만 명 돌파 시점보다 약 2주 정도 빠른 기록으로 제주 관광의 회복 속도가 매우 가속화되고 있음을 증명함.</li> <li>· 제주도는 내국인 단체 관광객 대상 인센티브 정책을 즉각 시행하고 외국인 대상 맞춤형 전략을 가동하는 등, 연초부터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선제적인 마케팅을 전개한 것이 주효했다고 분석함.</li> </ul> </li> </ul>
	<b>생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주지역 서비스업 및 광공업 생산 장기 부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도체 호조로 도내 수출액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광공업 생산지수가 전년 대비 하락하고 서비스업 생산지수 또한 4개 분기 연속으로 역성장하며 제주 지역 내수 경기의 침체와 부진이 장기화됨.</li> <li>· 특히 부동산업 생산이 40.2%나 급감하면서 서비스업 전체 실적을 크게 끌어</li> </ul> </li> </ul>

경제·관광	생산	<p>내렸고, 건설수주 역시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민간 발주와 건축 공사 감소로 인해 최장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는 상황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양식산업 친환경 생산체계 전환 집중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 변화와 생산비 급등으로 인해 위기에 직면한 제주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도 차원에서 총 296억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및 에너지 절감형 양식 기반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함.</li> <li>· 양식장 소수력발전시설과 히트펌프 등 첨단 에너지 절감 설비를 보급하여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생산비를 절감하며,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를 통해 향후 판매 경쟁력을 제고하는 생산 구조 다각화를 도모함.</li> </ul> </li> <li>- <b>딸기 우량 모종 지역 자체 생산 및 농가 보급</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 지역 의존도가 90% 이상이었던 딸기 모종을 도내 자체 생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조직배양 기술을 활용하여 병해가 없는 고품질 딸기 원원묘 7000주를 키워내고 도내 시범 농가에 우선적으로 공급함.</li> <li>· 장거리 운송 중 발생하는 탄저병 등 불량 묘 유입 피해를 원천 차단하여 농가의 수확기 생산량 감소를 방지하고, 향후 자체 생산 규모를 10만 주 이상으로 단계적 확대하여 도내 자급률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임.</li> </ul> </li> </ul>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전국 농축협 종합업적평가 최우수 쾌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협중앙회가 전국 1110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실시한 종합업적평가에서, 제주남원농협과 조천농협이 농촌형 평가그룹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하며 그룹별 최우수 사무소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음.</li> <li>· 경제사업과 신용사업 전반에서 균형 잡힌 성장과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구축한 경영 역량이 전국적으로 높게 평가받았으며, 대정농협과 표선농협 및 서귀포농협도 경영 내실화를 통해 우수 사무소로 나란히 선정됨.</li> </ul> </li> <li>- <b>제주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평가 대거 통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한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평가에서, 제주 지역의 8개 농장이 까다로운 전문적 치유 기능 검증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적합 판정을 받고 통과하는 성과를 거둠.</li> <li>· 단순한 농촌 체험을 넘어 이용자의 안전을 확고히 담보하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은 결과로, 제주의 천혜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치유농업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됨.</li> </ul> </li> <li>- <b>신약개발 평가 플랫폼 혁신 기업 대규모 투자 유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체 장기칩 기술을 활용하여 신약의 안전성과 효과를 정밀하게 예측하는 차세대 신약개발 평가 플랫폼 기업 '바이오스페로'가 제주 상장기업 육성펀드 1호로부터 10억 원의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함.</li> <li>· 동물실험의 근본적인 한계를 보완하는 비임상 평가 기술의 우수성과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깊이 인정받은 사례로, 확보된 대규모 투자금은 글로벌 규제 대응 및 임상 예측 정확도 향상 등 핵심 기술 고도화에 투입될 예정임.</li> </ul> </li> </ul>
	연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춘제 연휴 맞이 중국인 관광객 대규모 입도</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대 최장기간으로 이어진 중국의 춘제 연휴를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제주를 찾는 중국발 항공 노선이 전년 대비 12.6% 급증하고 크루즈 입항 일정이 겹치면서, 약 3만 4900명의 중화권 관광객이 제주로 대거 유입됨.</li> </ul> </li> </ul>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지역·사회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중증정신질환 주간재활프로그램 운영 개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 당사자들이 건강하고 독립적인 도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121회기에 걸쳐 중증정신질환 주간재활프로그램의 본격적인 운영을 개시함.</li> <li>· 다채로운 사회적응 훈련과 증상관리 및 마음치유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긍정적 정서 경험을 유도하며, 자기관리 역량을 대폭 향상시켜 일상생활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는 실질적 계기를 제공함.</li> </ul> </li> <li>- <b>서귀포보건소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귀포보건소는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적극 발굴하여 1회당 최소 50분 이상의 대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에 걸쳐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심리상담 바우처 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함.</li> <li>·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 결과 10점 이상인 자 또는 전문기관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가 주요 대상이며, 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액을 차등 적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민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함.</li> </ul> </li> <li>- <b>119구급 현장 인공지능 심전도 판독 시스템 도입</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촌각을 다투는 중증 심혈관계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내 모든 119구급 현장에 인공지능(AI) 기반 심전도 판독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함.</li> <li>· 구급 현장에서 측정된 심전도를 인공지능이 즉각적으로 정밀 분석해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환자 수용 판단 및 응급수술 준비가 가능해져 도민 생명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함.</li> </ul> </li> </ul>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주지역 아동돌봄정책 점검 및 발전 과제 연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연구원은 도내 초등 방과후 공적돌봄 총족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양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읍면동별 접근성 격차와 비정형 시간대 돌봄 공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심층적인 정책 점검 연구 결과를 발표함.</li> <li>·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아동돌봄 통합 거버넌스 구축, 통합정보시스템 기반 원스톱 플랫폼 마련, 야간 및 주말 돌봄 체계 고도화 등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중장기적인 정책 개선 및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함.</li> </ul> </li> <li>- <b>제7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 성과 공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연구원은 제7차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상황과 에너지전환 드라이브 전담팀의 주요 사업 성과를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성과공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여 논의를 진행함.</li> <li>· 이번 공유회에서는 연구용역 중간보고와 더불어 전문가 자문 및 도민 질의응답을 거쳐 생활과 산업 전 영역의 에너지전환 확산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제주 맞춤형 에너지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 역량을 집중함.</li> </ul> </li> <li>- <b>제주 4.3 진실 규명을 위한 실증적 사료 연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대학교 4.3융합전공 학술대회에서는 4.3 사건 발발 80주년을 앞두고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측 사료와 국내외 신문 자료를 정밀하게 교차 검증하는 실증적인 본질 연구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함.</li> </ul> </li> </ul>

지역·사회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한 사후 연구를 넘어 세계 냉전체제 형성기의 국제적 맥락 속에서 4.3 사건을 재조명하고, 대량학살 관련 글로벌 비교연구를 대폭 확대하여 국가폭력의 근본적인 원인과 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학술 연구를 촉구함.</li> </ul>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마라도 방파제 해상 추락 부자 긴급 인명 구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귀포시 마라도 신작로 방파제에서 사진 촬영을 하던 중 발이 미끄러져 거센 바다에 빠진 10대 아들과 이를 구하기 위해 지체 없이 뛰어든 50대 아버지를 마라전담의용소방대가 즉각적으로 출동하여 신속히 구조함.</li> <li>· 무사히 구조된 아들은 현장에서 저체온증 응급조치를 받았으며, 구토 및 산소 포화도 저하 등 심각한 위기 증세를 보인 아버지는 소방 닥터헬기를 통해 육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어 도서 지역 응급 구조 체계의 중요성을 입증함.</li> </ul> </li> <li>- <b>멸종위기 겨울 철새 큰고니 치료 후 자연 구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대학교 야생동물구조센터는 하도 철새도래지 해안에서 심각한 기아와 탈진으로 자립이 불가능한 상태의 천연기념물 큰고니를 안전하게 구조한 뒤, 약물 치료와 고영양 보충을 포함한 전문적인 내과 집중 치료를 실시함.</li> <li>· 전용 계류시설에서 한 달여 간의 체중 증가와 단계적인 유영 훈련을 거쳐 비행 및 수영 능력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최종 확인한 후, 최초 구조 지점에 다시 방사하여 생태학적 지표종 보호와 생태계 건강성 회복에 기여함.</li> </ul> </li> <li>- <b>폐어구 얽힌 남방큰돌고래 신속한 구조 촉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 구좌읍 앞바다에서 등지느러미와 몸통, 가슴지느러미에 버려진 폐어구가 깊게 얽혀 신체가 심하게 손상된 어린 남방큰돌고래가 발견됨에 따라, 생존 위협 요인 제거와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긴급 구조의 필요성이 대두됨.</li> <li>· 환경단체는 폐어구로 인한 상처 부위 절단과 활동성 저하 피해가 지속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하며, 해양생태계 보전법에 근거한 즉각적인 폐어구 수거와 적극적이고 안전한 구조 조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함을 강력히 주장함.</li> </ul> </li> </ul>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외국인 범죄 적극 대응 위한 기동순찰대 재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경찰청은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가파른 증가에 따른 범죄와 무질서 행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동순찰대를 외국어 능통자 중심의 전문적인 외사기동순찰팀으로 전면 개편하여 치안 역량을 강화함.</li> <li>· 외국인 밀집 상권과 우범 지역을 집중적으로 순찰하여 범죄 불안감을 해소하고, 첨단 드론팀을 새롭게 신설하여 실종자 수색 및 교통 단속에 적극 투입하는 등 치안 여건 변화에 맞춘 다각적이고 기동성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함.</li> </ul> </li> <li>- <b>기후위기 선제 대응 지능형 재난관리 체계 구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특별자치도는 폭염, 집중호우 등 점차 심각해지고 빈번해지는 기후위기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신 인공지능(AI) 기술과 방대한 데이터를 결합한 차세대 지능형 재난관리 맞춤형 플랫폼 구축을 추진함.</li> <li>· 기존의 사후 복구 중심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인공지능 기반의 정밀 분석과 실시간 현장 모니터링을 도입함으로써, 재난 예방 및 예측 중심으로 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강력한 대응력을 확보함.</li> </ul> </li> <li>- <b>호흡기감염병 유행 확산 대응 감시망 확대 운영</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소아 및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는 B형 인플루엔자 등 다양한 호흡기감염병의 변칙적인 유행 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li> </ul> </li> </ul>

지역·사회	대응	<p>하고자 국가 통합감시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추가로 확대 지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급성호흡기감염증 원인 바이러스를 매주 정밀하게 검사하고,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과 실시간으로 긴밀히 공유하여 새 학기 개학 이후 집단생활에 따른 대규모 재유행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고 대응함.</li> </ul>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농번기 과수 전정 파쇄기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봄철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과수 전정 작업 중 파쇄기 말림이나 끼임과 같은 치명적인 중증 외상 사고 발생 빈도가 급증함에 따라, 선제적 위험 예방을 위한 파쇄기 안전사고 주의보를 공식 발령함.</li> <li>·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파쇄기 작동 시 투입구 접근 금지 및 보호장구 착용 등 필수 안전수칙 전파 홍보를 대폭 강화하고, 위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인명 구급 출동 태세를 확립하여 중대 사고를 예방함.</li> </ul> </li> <li>- <b>무인단속 과태료 수익 환원 통한 교통사고 예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자치경찰단은 무인 교통단속을 통해 징수한 막대한 과태료 수입을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설 보강 및 스마트 지능형 횡단보도 도입 등 도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에 전액 재투자함.</li> <li>· 기존의 단순 적발과 처벌 중심 행정에서 탈피하여 징수된 과태료 수익을 지역 사회의 안전 재원으로 투명하게 환원함으로써, 상습적인 교통사고 다발 구역의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보행자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함.</li> </ul> </li> <li>- <b>중소규모 숙박시설 대상 선제적 화재 안전 예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주소방서는 대형 시설에 비해 관리 인력의 한계와 시설적 취약성으로 인해 화재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관내 중소규모 영세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대대적이고 집중적인 화재안전조사를 선제 추진함.</li> <li>· 비상구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와 불법 장애물 적치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단순한 단속을 넘어 시설 관계자의 자율적 예방 의식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현장 안전 컨설팅을 병행 지원하여 대형 화재 참사를 사전에 방지함.</li> </ul> </li> </ul>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